

제주항공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항공 산업의 플라스틱 저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 (BCGPT, Business Coalition for a Global Plastics Treaty) 이니셔티브 참여**

제주항공은 2024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인 BCGPT(Business Coalition for a Global Plastics Treaty)에 가입하여, 항공 산업 내 플라스틱 저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CGPT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엘렌맥아더재단(EMF)이 공동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현재 약 220개의 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UN이 주도하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체결을 공동 목적으로, 해당 협약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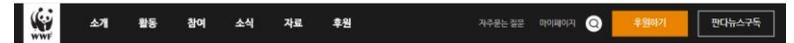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실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목적: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 참여 기업: 약 220개의 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NGO 등
- 주요 활동 실적 (제주항공)
  - 이니셔티브 가입 및 발족식 (2024. 10. 23)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내 지속적 공동 의견 개진\*
    - \* 한국 정부 대표단 서면·대면 선언문 기반 의견 개진 및 협상 주도 등
- 기대 효과:
  - 플라스틱 순환 체계 구축 기반 생산량 및 사용량 감축
  - 미세·마이크로 플라스틱 누출 방지 통한 오염 문제 해결

‘비즈니스 연합에 가입한 제주항공과 블랙야크 관계자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기업으로서의 의의와 자사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각 기업의 목표와 업계 현황을 공유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 출처: WWF 소식지 (2024.10.23)

[https://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8&sfl=wr\\_subject&stx=%ED%94%8C%EB%9D%BC%EC%8A%A4%ED%8B%B1&sop=and&page=1&ht=](https://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8&sfl=wr_subject&stx=%ED%94%8C%EB%9D%BC%EC%8A%A4%ED%8B%B1&sop=and&page=1&ht=)



[소식] WWF, '제5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개최  
23 Oct 2024



▲ 제5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에서 개최식을 하고 있는 박민희 한국 WWF 사무총장

WWF(세계자연기금)는 지난 10월 23일 '제5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양동 콘서트홀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PACT 참여 기업 및 관심 기업에서 약 5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첫 발표에 나선 환경생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한국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향후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온·저장은 생활가용의 건·과건(배출-수집-운반-처리)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웹 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써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 및 저사용 관련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기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의 개념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조 연구원은 소재물의 내구성 및 유지 보수, 소수리의 개선품, 설계철거 및 개조 조립 등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거친소 및 개성 철거를 활용한 순환제품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